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에디션 www.sportsdonga.com
2010년 12월 30일 목요일 10판 E01

평택항 내려다보며 달빛 아래 와인 한잔 "이맛이 노숙이다"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3 전곡항~당진 〈하〉

"가로등 NO! 도로·민가에서는 멀리 '절대고독' 위해 조용하고 어두워야"

추위에 덜덜 주린배 쥐고 야영터 물색 거 참, 허 화백 노숙조건 까다롭기는…

앗싸! 항구 불빛 내려다보는 팔각정 발견 때마침 집단가출팀 김상덕씨 찾아오고

배낭 안 포도주 풋내 나면 어떠리 달님 가고 별들의 우주쇼 올때까지 친구여 잔을 들어라!

꽁꽁 언 몸이 사르르…감동의 맛 한낮에도 영하에 머무르는 기온에 자동차와는 달리 온 몸이 바람에 노출된 상태로 몇시간씩 달리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이럴 때 만나는 뜨거운 음식은 맛을 떠나 그 자체로 감동이다. 등대식당의 들깨수제비를 뜨고 있는 허영만 화백. 사진 | 김경민

1 강화도 강화대교~초지대교	16 고흥~여수
2 초지대교~전곡항	17 여수~남해
3 전곡항~당진	18 남해~거제도
4 당진~안면도	19 거제도~부산
5 안면도~광천	20 부산~포항
6 광천~서천	21 포항~울진
7 서천~김제	22 울진~삼척
8 김제~선운산	23 삼척~양양
9 선운산~함평	24 양양~고성
10 함평~목포	25 고성~인제
11 목포~진도	26 인제~양구
12 진도~해남	27 양구~화천
13 해남~완도	28 화천~철원
14 완도~장흥	29 철원~파주
15 장흥~고흥	30 파주~강화도

송철웅 아웃도어 칼럼니스트 timbersmith@naver.com
사진=이정식 스포츠 포토그래퍼 moto1444@hanmail.net

자전거에는 자석의 자력으로 작동되는 속도-거리계가 달려있다. 오전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출발해 황혼 속에서 아산방조제를 건넜을 때 거리계에 찍힌 주행 거리는 90km.

9월에 강화도에서 출발한 이후 가장 긴 거리를 달린 끝에 드디어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남도에 진입한 것이다.

뜨겁고 진한 맛의 닭개장으로 하루 종일 칼바람을 뚫고 달린 허기와 추위를 몰아내고 기운을 차린 뒤 첫 숙제는 하룻밤을 묵을 적당한 야영터를 찾는 일이었다.

허영만 화백이 선호하는 야영터의 선정 기준은 꽤 까다롭다. 우선 주변에 가로등 같은 불빛이 없어야한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달빛, 별빛을 보며 잠드는 것인데 주변이 환하면 하늘을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가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해야한다. 야영의 낭만 중 손꼽히는 '절대고독'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허화백과 함께 백두대간 종주, 대한민국 영해 외곽선 일주 항해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들과 달리 '집단가출'에 처음으로 동참한 탓에 노숙에 익숙치 않은 홍석민이 볼멘소리를 한다.

"어둡고, 조용한 곳이요? 우리가 뭐 어둠의 자식들도 아닌데…. 그런 곳은 산짐승들이나 좋아하지 사람이 있을 곳이 됩니까?"

홍은 자전거 전국일주의 첫 야영 때 맨 땅에 매트리스를 깔고 침낭을 펼쳐 눕는 것을 보고 기가 질려 혼자서 인근 모텔에서 잤던 전과가 있다.

탈영(?) 전력이 있는지라 댓바람에 "그래? 비박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소리가 나오자 기어드는 목소리로 "아니, 꼭 못자겠다는 것은 아니구요"라며 꼬리를 내리고 만다.

삽교함상공원에서 북쪽 해안을 따라 잡초 우거진 해안 논둑길을 라이트를 켜고 한참을 헤맨 끝에 맷돌포 뒷산 꼭대기에서 적당한 곳을 발견했다. 제법 큰 2층짜리 팔각정이 설치되어있는데다 서해대교와 평택항의 휘황한 불빛을 멀리 조망할 수 있는, 경치가 그만인 곳이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집단가출호 선원 출신인 김상덕 씨가 묵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팔각정으로 찾아왔다. 그의 배낭 안에는 올해 수확한 포도로 담근 포도주가 들어있었다. 이른바 보졸레 누보. 아직 숙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풋내가 살짝 났지만 신선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그만이었다. 침낭의 지퍼를 올려 눈만 내놓고 천구 가득 펼쳐지는 별들의 우주쇼를 보다 잠이 들었다.

●정성스런 손맛…등대식당 부추비빔밥과 들깨수제비

다음날 아침 일찍 삽교함상공원 어시장에서 코스와 음식 가이드를 자청한 당진 MTB동호회 짐자전거 클럽 회원 10명과 합류했다. 이 지역 정보에 훤한 짐자전거 클럽 회원들은 자동차 도로를 극도로 기피하는 우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삽교방조제에서 당진으로 이어지는 32번 국도를 우회하는 오프 로드로 안내했다.

국도로 가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거리지만 야산을 넘고, 마을 오솔길을 누비고, 논밭사이로 넘나드는 길은 정겹고 유쾌했다. 현지 자전거 동호인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 없을 듯한 절묘한 길을 신나게 달려 점심 무렵 옛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등대식당에 도착했다.

〉〉 E2면으로 계속됩니다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1 비박 스타일의 야영은 낭만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뜨끈한 구들장에서 잠을 잔 것에 비해 아침에 몸이 다소 무겁게 마련이다. 야영 후 새로운 하루의 라이딩을 시작하기에 앞서 체조로 몸을 풀고 있는 허화백(오른쪽)과 정상욱 상무. 사진 | 신훈중

2 등대식당 주방에서 도란도란 정답게 수제비를 떼어넣고 있는 강화엽(빨간조끼), 화임 자매. 전남 해남이 고향인 자매는 수십년의 타향살이에도 불구하고 남도의 손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 김경민